"국내 광융합기업 해외시장 연착륙 적극 지원"

광산업진흥회, 기업·해외마케팅센터장 워크숍
주요분야 기술시장 동향 공유·대응전략 등 모색

국내 광융합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시장 진출 참여기업 통합간담회 및 해외마케팅센터장 워크숍'이 열린 가운데 이재형 한국광산업진흥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내 광융합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교두보가 마련돼 주목을 끌고 있다.

28일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이날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알레그로홀에서 광융합 관련 국내 수출기업 53개사, 해외마케팅센터 9개소, 수출 관련 전문가 등 8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시장 진출 참여기업 통합간담회 및 해외마케팅센터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국내외 산업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수출기업과 한국광산업진흥회 해외마케팅센터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워크숍은 한국광산업진흥회 해외 마케팅센터의 현지 시장 및 프로젝트 소개와 한국광산업진흥회의 '해외마케팅 성공사례 및 지원사업 소개, 그리고 주요분야 기술시장 동향에 대한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여기업들은 해외 주요시장 8곳(미국·독일·러시아·일본·인도·태국·베트남·아랍에미레이트)에 대한 현지 프로젝트 이슈와 성공사례, 진출전략 등을 공유했다.

또한 ICT 및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동향에 대한 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기업, 관련분야 전문가, 해외마케팅센터가 함께 향후 발전방향 협의 및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계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5G분야 차세대 광통신 기술동향'을 주제로 특강에 나선 '오이솔루션' 권창순 전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내기업의 혁신적인 아이템 개발 및 세계시장 진출의 중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미주지역 마케팅센터' 곽지상 센터장은 국내기업이 해외진출시 현지 표준 및 규격에 대한 정보와 장기적 진출 계획을 갖고 접근해야 성공한다는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국광산업진흥회 조용진 상근부회장은 "광융합산업 관련 중국기업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장정보 확보 및 현지 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국내기업과 현지 마케팅센터의 협력, 국내기업 공동 마케팅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해 해외시장 연착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전세계 13개소의 해외마케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바이어 발굴, 수출계약 체결 지원, 현지 시장동향 조사, 사후관리 등을 통해 국내 광융합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박은성 기자

상용 전기차 적재 중량별 성능 조절 기술 개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소형 상용 전기차의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 적재중량을 추정한 뒤 그에 맞는 최적의 성능으로 변경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현대차·기아차는 향후 출시될 소형 상용 전기차에 이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사진은 현대차·기아차 연구소 환경챔버에서 연구원들이 중량 추정 정확도 향상 시험을 하는 모습. /현대·기아차 제공

유·스퀘어 '홍보마케팅 공간' 각광

車·가전제품 등 프로모션 활발

유·스퀘어가 신제품 홍보 및 고객 유치 이벤트를 하려는 기업 및 단체에게 최적의 홍보마케팅 장소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28일 유·스퀘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닛산자동차 리프와 X트레일, 쌍용자동차 코란도, 현대자동차 쏘나타, 삼성전자 갤럭시 S10 등 다양한 제품의 프로모션이 열렸다.

엘지U+의 5G체험존도 지난주 성황리에 종료됐다. 현재는 광주 공동브랜드·에어가전 제품 홍보관이 진행 중이다.

여행, 도서, 영화, 공연·전시 관람 등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광주의 복합문화공간 유·스퀘어는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6-7만에 이른다.

다양한 외식 업체와 키즈파크를 갖추고 있고,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꾸준히 열리고 있어 타 지역에서도 관람객들이 끊이질 않는다.

특히 이용객들 중에는 문화·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젊은 연령층이 많아 짧은 시간 내 제품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기업들이 유·스퀘어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갤럭시 S9 프로모션을 진행해 홍보효과를 톡톡히 본 삼성전자는 올해에도 유·스퀘어 내 유·스토리(영풍문고와 롯데리아 사이)에 체험존을 마련해 이용객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오는 9월에도 갤럭시 노트10 출시에 맞춰 체험존을 운영할 예정이다. /임후성 기자

지난해 국토 면적, 여의도 5배만큼 넓어졌다

영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 등 공유수면 매립 효과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가 수면 매립 사업 등의 효과로 여의도 면적의 약 5배 정도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간한 '2019년 지적(地籍:땅의 정보) 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지적공부(지적을 명시한 토지 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총 10만378㎢로 집계됐다.

1년 새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 2.9㎢)의 5배에 이르는 14㎢의 국토가 늘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는 영암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8.4㎢), 경기도 시흥시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조성사업(1.1㎢) 등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것이다.

광역자치단체별 토지 면적은 ▲경북 1만9천33㎢(비중 19.0%) ▲강원 1만6천828㎢(16.8%) ▲전남 1만2천344㎢(12.3%) 순으로 컸고, 세종특별자치시(465㎢)와 광주(501㎢), 대전(540㎢)은 소규모 광역단체 1-3위를 차지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강원 홍천군 1천820㎢(1.8%) ▲강원 인제군 1천645㎢(1.6%) 순으로 넓었다.

지난 10년간의 지적통계를 보면, 2009년과 비교해 임야·농경지(논·밭·과수원)는 감소한 반면 주거·생활기반 시설과 교통기반 시설 관련 토지 면적은 증가했다. /박은성 기자

NH농협은행 전남본부, VVIP 부동산·세무 세미나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는 28일 전남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VVIP 고객 6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세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2019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절세전략' 주제로 농협은행 WM자문센터 김효선 부동산전문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주요 이슈와 백종원 세무사의 개정 세법 및 절세전략 강의 순으로 이뤄졌다.

또 세미나와 별도로 부동산과 세무 관련 개별 상담부스를 운영했고 국악인 김향순 명창의 우리국악의 이해에 대한 강의와 무료로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이벤트도 함께 마련했다.

농협은행 WM자문센터는 지난해 11월에 신설돼 VVIP고객의 니즈 충족과 자산 가치 증대를 위해 고객의 종합자산을 WM전문 인력이 지원하는 컨설팅 조직이다.

서옥원 농협은행 전남본부장은 "앞으로도 고객의 자산 가치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한층 더 가깝게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

● 투데이 경제

새마을금고 지역본부, 창립 56주년 행사

새마을금고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4일 지역본부 교육관에서 새마을금고 창립 56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광주전남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수상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금고 창립 이후 56년간 성과와 창립의 목적을 되새기고 새마을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 수여 및 오찬으로 이뤄졌다.

정찬호 지역본부장은 "올해 4월말 기준 광주전남지역에는 98개 새마을금고에서 121만5천명이 거래하고 있고, 10조5천489억원의 자산을 조성해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후성 기자

광주노동청, 가전 일자리 네트워크 회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28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지역 가전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가전 일자리 네트워크'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가전 일자리 네트워크'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주도하고, 광주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자부품연구원 등 7개의 민 관 기관과 주요 가전업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기산업육성과 관련한 기관별 지원방안, 에어가전산업협의체(가칭 ㈔공기산업진흥회) 설립 및 향후과제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임후성 기자

서광주우체국 '작은대학' 졸업식

서광주우체국은 지난 3월부터 10주간 운영한 '이동우체국 작은대학' 졸업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부터 실시한 '이동우체국 작은대학'은 기존의 우체국 작은대학에 참여의 편리함을 더해 직접 강사가 지역 내 아파트 단지의 경로당·도서관 등을 방문해 진행하는 형식으로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서광주우체국은 쌍촌주공아파트 경로당에 이동우체국 작은대학을 개소해 '노년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지난 21일 2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임후성 기자